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럽경기 회복세 희망적

□ 최근 미국 및 아시아권의 경기회복 지연 조짐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기 관련 지표들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.

- 유로지역의 2/4분기 실질GDP는 소비(0.8%), 수출(12.0%)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.9% 성장함으로써 회복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임.
 - 특히, 독일의 실질GDP는 3.7% 성장하여 20년래 최대의 성장폭을 시현하였고, 프랑스, 영국, 이탈리아도 각각 1.7%, 1.7%, 1.1% 성장함으로써 회복세가 탄력을 받음.
 - 독일의 높은 성장세로 인해 주변국인 폴란드, 체코, 슬로바키아는 각각 3.8%, 2.2%, 5.0%의 빠른 회복세를 시현함.
 - 다만,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(-3.5%) 및 스페인(-0.1%)과 이들의 주변국인 불가리아(-1.5%), 루마니아(-1.5%), 포르투갈(1.4%) 등은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10.0%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 2월 이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상황이며 독일, 오스트리아, 핀란드, 이탈리아 등은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소비지출 증가가 기대됨.

□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지역의 이러한 회복세는 수출 증가, 안정적인 고용여건에 따른 소비증가,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.

- 미국의 경기회복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수요 증대로 인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, 주요국들의 고용시장 안정화추세로 소비도 점차 증가함.
- 또한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유동성확대정책도 성장회복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풀이됨.

□ 한편, 미국의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고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유지된다면 중국과 독일의 성장세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로지역은 하반기에도 순조로운 경기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.

- 유럽중앙은행은 7~8월 연속 경기체감지수가 상승하고 경기회복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금년 경제성장률을 종전(0.7~1.3%)보다 상향(1.4~1.8%) 조정하였으며 내년의 성장률도 종전(0.2~2.2%)보다 상향(0.5~2.3%) 전망한다고 발표함.

(Eurostat 9/2, Financial Times, Bloomberg, 8/31)